

## 6.4 역대 학생수상자 소회

CJ제일제당 김형준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책자에 지면을 할애해 주시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2001년 우리 학회의 전 명칭인 한국 산업미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터상을 받게 된 계기로 현재까지 20년간 몸 담고 있는 CJ제일제당과 인연이 닿았고, 또 다시 이로 인하여 학회와 인연이 닿아 학회 산학협력간사로 봉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분야 연구에 내 미래를 맡겨 보겠다고 결심한 이후, 매년 중요한 순간들에 항상 미생물 생명공학회는 저와 함께 해주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우리 학회와 관련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특별한 강점 중 하나는 산학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처음 나오는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우리 학회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고 이는 학회와 산업계가 상호 공생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의 작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당 시에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는 수준의 다분히 사적인 영역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나, 비교적 근래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수년 전부터 학회에서 먼저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CJ제일제당 또한 이에 화답하여 좀 더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년 학술대회 시 세션을 구성하여 연구 및 사업화에 대한 관심사를 나누고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연구 협력으로 실제 이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및 연구자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회에 참여하는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하여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용부스를 운영하면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고 또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별도의 지원 루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2019년부터 기업특별상을 제정하여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수님 및 연구원 분들께 시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우수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에 대하여 시상하고 오래 전 제가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공식적인 루트로 입사 지원 시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회를 통해서 받았던 기회를 후학들을 위해서 나눠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고 학회나 회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호 협력 활동들이 간사회를 통한 산학 협력 모델 수립의 결과였으며, 매년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몇 년 전부터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였습니다. 학회의 기본 역할은 학술 발전을 위한 연구자 간의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 역할에 충실하되 미래의 우리 학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학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신중히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으며, 이에 두 가지 사항을 제언 드립니다.

첫 번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 마련을 통하여 미래 잠재적 연구자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 학회 책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인구 절벽이라는 다소 절망적 미래 예측 속에서 학계 또한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학문 및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술대회에서도 Public 세션을 만들어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세션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 학회뿐만 아니라 기업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더욱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제공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환경, 기업 및 연구자간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한 곳에 학회의 입장에서 좀 더 공인된 연구자 간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과학의 시작은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의 완성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진실”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치,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가치 등 바이오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기계 등등 어떤 학문 분야가 되었던 호기심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결국 추구하는 방향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지킨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연구자에게 있어서 초심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며, 나의 관심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경험을 어떻게 인류와 지구를 위한 가치에 일치시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글을 마칩니다.